

우주강국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령도업적

김 은 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지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우주를 정복하기 위한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주강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주정복은 인류가 갈망하는 리상이며 목표이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며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거나 경제적잠재력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쉽게 성사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전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를 통쾌하게 성공시킴으로써 선군조선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우리 나라가 우주강국대렬에 들어섰다는것을 긍지높이 선언하였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지구위성들의 성과적발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이 가져온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이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전인민적인 대경사이다.

우주강국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우주정복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신것이다.

인공지구위성개발은 웬만한 국력을 가지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것으로서 지금까지 발전된 몇개 나라들의 독점물로 인정되어왔다.

더우기 모든것이 부족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경제봉쇄가 가해지는 우리 나라에서 인공지구위성개발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찍부터 우주정복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초행길을 헤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운반로켓과 인공지구위성개발의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과 자원에 의거하여 인공지구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령도의 길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기술적잠재력에 토대하여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로 연구집단을 무어주시고 연구종자와 설계, 제작 및 발사에 이르기까지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과학자, 기술자들이 개발한 운반로켓의 전시품도 보아주시고 위성개발의 현실적가능성이 마련되었다고 고무해주시고 일부 과학자, 기술자들이 일시적난관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있을 때에는 신심을 북돋아주시며 그들의 눈을 떠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고무된 과학자, 기술자들은 5년이상은 걸려야 한다는 설계도면들과 각종 기술문건들을 단 1년동안에 완성하고 이어 고심어린 탐구와 긴장한 전투를 벌려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해결하지 못한 다계단운반로켓과 인공지구위성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주체87(1998)년 8월 31일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우주에 솟구쳐올랐다.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는 조선을 기어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어나갈 억척불변의 의지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우주강국건설에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이 낳은 빛나는 결정체였다.

이렇게 우리 나라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었다.

오늘날 해당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데서 우주개발능력은 무시할수 없는 주요지표로 되고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조국이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보여주는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발사를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독자적으로 완성시켜 시대의 상상봉우에 우뚝 올라서게 된것은 실로 전대미문의 력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공지구위성개발과 발사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실용위성개발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첫 시험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한 때로부터 10년간 인공지구위성개발 및 발사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주체98(2009)년초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할수 있는 준비가 완전무결하게 끝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선공개, 후발사방식으로 발사하도록 하시고 위성발사를 공식화, 합법화하는 조치들을 선행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98(2009)년 2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시험통신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것을 공식 선포하였으며 3월초에는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조약들에도 가입하였다. 련이어 해당 국제기구들에 위성발사와 관련한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위성발사와 관련한 국제적절차들을 정정당당하게 밟아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적대국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강력한 군사적 및 외교적대응조치들도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이 시기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우리가 시험통신위성을 발사한다고 하자 그 무슨 《요격》이니, 《제재》이니 하면서 벽적 교아했으며 조선동해상에는 미, 일, 남조선피뢰들이 이 지스구축함집단까지 전개해놓았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 적들의 《요격》소동에 강타를 먹이도록 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를 통하여 인공지구위성발사는 우리의 자주적권리이며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용서치 않는다는것 특히 우리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이며 그 즉시 적들의 전개된 《요격》수단뿐만아니라 중요대상에도 단호한 불벼락을 안기려는 멸적의 기상을 천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위성발사를 앞두고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상정취급만 해도 6자회담을 깨고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할것이라는 외무성대변인담화와 대답을 련이어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백두의 산악과도 같은 위대한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앞에 두달나마 《요격》나 발을 붙여대던 적들은 꼬리를 사리였다.

지구상에는 일정한 기술경제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렬강들의 압력에 눌리워 위성을 개발하고싶어도 하지 못하고 위성을 쏘올리고싶어도 쏘올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제국주의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를 이룩하고 또다시 위성발사의 력사적순간을 맞이하게 되였다.

주체98(2009)년 4월 5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지구를 박차고 거세차게 솟아오르는 운반로켓 《은하-2》호에 실려 우주공간으로 날아올랐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존엄높은 인공지구위성제작국, 발사국, 보유국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주강국의 령마루에 당당히 오르게 되였다.

우주강국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과학기술중시사상과 첨단돌파사상의 빛나는 승리로 우리 나라를 우주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신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광명성-3》호를 쏘올려 우주정복과 리용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광명성-3》호의 발사를 주체101(2012)년내에 기어이 성공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예민한 정치적문제들은 물론 첨단과학기술적문제들에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자들이 《광명성-3》호 1호기발사에서 실패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을 빨리 찾고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마련해주시였다.

어떤 날에는 10여차례나 전화로 알아보시고 어떤 날에는 집무실에 부르시여 가르치심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시여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반드시 성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받아안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한다하는 우주강국들에서도 위성발사를 저어하는 겨울철에 그리고 주변국가들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기 위하여 가장 유리한 자리길을 예돌아야 하는 불리한 발사조건과 환경에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며 운반로켓 《은하-3》호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믿음성과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짧은 기간에 결속하고 위성을 쏘올릴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첫 기관단총으로 시험사격을 하신 력사적인 날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하도록 하시였다.

위성발사와 관련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담화가 나가자 미제와 그 추종세

력들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군사적압박과 정찰소동에 광분하면서 우리의 위성발사를 한사코 막아보려고 시도하였다.

적들은 또다시 조선서해와 조선남해에 미군 이지스구축함 《맥케인》호와 《마스틴》호, 남조선괴뢰해군의 이지스함 《물곡 리이》호를 비롯한 10여척의 함선들을 동원시켰으며 첨단전자설비들로 장비된 각종 정찰기들과 위성들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대한 정찰을 강화하였다. 일본반동들도 《요격》소동에 합세하여 미쳐돌아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압력소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주체101(2012)년 12월 12일 오전 8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와 관련한 최종친필명령을 하달하시고 발사를 앞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따라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는 우리 나라의 산림자원분포정형과 자연재해정도, 알곡예상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발사와 발사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이 100% 주체화된 위성이었다.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완전성공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자랑스런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 토대하여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1(2012)년 12월 우리 당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위성과 운반로켓들의 보유를 강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쏘올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하여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주강국으로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올릴데 대한 종합적인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주체적인 우주개발기구들을 조직하고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비롯한 관련시설들도 새로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그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명당자리에 위치를 잡아주시였으며 설계로부터 건설력량편성,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건설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4(2015)년 5월초 우주정복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우리 조국을 우주강국으로 더욱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주개발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련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올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성과적으로 계속 쏘아올릴수 있게 마련된 든든한 도약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광명성-4》호발사의 대성공으로 우주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라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와 서해위성발사장을 거듭 찾으시여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현지에서 발사과정을 지도해주시였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는 운반로켓에 실려 주체105(2016)년 2월 7일 9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만에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였다.

한겨울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사소한 편차도 없이 지구관측위성을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위성운반기술과 로켓조종기술이 매우 높은 경지에 올랐다는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주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우주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우주정복의 첨단을 돌파한 이 력사적사변은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미래관으로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이처럼 조선은 무변광대한 우주에 자기의 령역을 더욱 넓히고 자기의 활무대를 마음대로 척척 펼쳐나감으로써 세계적인 우주강국의 전렬에 보무당당히 들어섰다.

이 자랑스런 현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기어이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일 숭고한 의지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을 지닌 위인의 령도만이 안아올수 있는 빛나는 승리이며 우주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친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실마리어 우주강국, 위성발사